

고령화사회 노인주거문제와 정책대응과제 · I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실태와 주거의식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됨
 - 출산력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증가
 - 노인의 사회참여욕구 증대,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경제성장 둔화, 실버산업의 등장
 - 가족기능 약화로 빈곤노인계층의 양산 우려, ‘가족중심의 노인문제 해결’에서 ‘국가의 역할 증대’가 요구될 것임
- 노인가구의 주거상황은 일반가구보다 열악하고, 특히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음
 - 노인가구의 자가거주비율은 높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조밀하게 거주하며 주거이동이 매우 적음
 - 노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며,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자녀가구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점차 증가
-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1. 고령화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2%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¹⁾하였고,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의하면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노인인구 비중이 7% → 14%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본보다도 5년이나 짧은 19년에 불과해 고령화 속도가 가장 급속한 나라에 속함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됨
 - 출산력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부담의 적정성, 형평성 등 세대간 갈등 심화예상
 -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증대할 전망
 -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경제성장 둔화, 실버산업의 등장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대
 - 가족기능의 약화로 빈곤노인계층의 양산이 우려되며, ‘가족중심의 노인문제 해결’에서 ‘국가의 역할 증대’가 요구될 것임

2. 노인가구수의 변화

□ 노인가구의 독립세대 구성 급증

- 노인가구²⁾수는 2000년 현재 173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2.1%에 달하며 1990년에 비하여 47.8% 증가
 -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는 76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4%, 노인가구의

1)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며, ‘고령사회’는 14%를, ‘초고령사회’는 20%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함

2)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44.2%에 달하며, 1990년에 비해서 2.6배로 급증

- 특히 농촌의 경우, 이들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음

- 향후 20년간 전체 가구수는 14.2% 증가할 것임에 반하여 노인가구주 가구는 56.1%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수는 4.3배로 증가할 전망

3.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 노인가구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가보유는 높은 수준

- 가구소득은 40대 후반에 가장 높고 50대 후반 이후 급감하지만, 자가보유율은 60대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65세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

-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보다 낮은 수준이며

- 특히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도시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비중이 각각 56.3% 및 35.2%로 매우 높음

□ 노인가구의 주거상황은 일반가구보다 열악

- 노인가구는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조밀하게 거주하며 주거이동이 매우 적음

- 노인만으로 구성되거나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이 더욱 열악

- 자가거주율은 76.0%로서 일반가구(54.2%)보다 높으며, 읍면부는 90.6%, 동부는 66.6%로 도농간 격차가 큼

- 노인가구의 상당수(67.7%)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91.6%, 노인1인가구는 95.4%가 단독주택에 거주

- 방당거주인 수는 1.33명으로 일반가구(0.92명)보다 상대적으로 조밀함



<그림>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실태 비교

- 주거시설수준은 일반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특히 읍면부의 노인1인가구 주거시설수준은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시설, 상수도 부문 등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음
-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음
 - 45세 이전에는 10년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 미만이었으나
 - 65세 이상에서는 30%대로 증가하며
 -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절반 정도가 10년이 넘는 주택에 거주

□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이 더욱 열악

- 노인가구는 주택의 적절성(adequacy) 및 노인접근성(accessibility), 주거소비량의 적합성(suitability), 주거비부담능력(affordability)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와 미성년가구’의 경우 노후도가 높은 주택에 거주
 - 출입문과 복도의 넓이는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으나, 특히 ‘계단이나 문턱’, ‘응급벨’, ‘경비실 호출’ 등 안전장치는 거의 설치되지 않음
 - 노인가구의 6.6%가 방당 2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의 5.9%보다 높음. 특히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주거조밀도가 매우 높음

- 최저소득계층에 속하는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과중함
 - 서울의 경우 제1오분위의 주거비부담이 66.9%로 매우 높고 제5오분위에서는 11.4%로 하락
 - 특히 ‘노인1인가구(37.3%)’, ‘노인부부가구(31.9%)’의 주거비 부담이 과다

4. 노인가구의 주거의식

□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점차 증대

- 노인 독립세대 구성 비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점차 증대
 - 자녀가구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가구는 59.9%로서 현재의 독립거주율인 43.9%를 크게 상회함
 - 주거의식의 소득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노인가구중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8.7%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나,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97.3%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
 - 자녀와 동거희망은 제1오분위의 경우 15% 안팎이고, 제5오분위의 경우 75%로 높으나 전반적으로 독립거주희망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별로 높지 않음

- 노인가구의 50.4%가 일반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 원하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3.3%로 낮음
 - 노인복지주택 선택시 ‘입주비용’, ‘의료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고려
 -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 부족’, ‘현재 집에 만족’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자녀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싫어서’, ‘자녀반대’라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음

3)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일 수 있으나, 소득이 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급

- 노인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정책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공임대, 3세대 동거형 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양로시설 등의 공급확대,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표현되고 있음
 - 주택개보수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택수요가 신규수요에 치우쳐 있고, 현재의 주거상태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꺼리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임
- 고령화의 급진전, 노인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대, 노인문제의 국가부담증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노인주거수준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노인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급함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 (jhyoon@krihs.re.kr, 031-380-0308)

국토연구원 강미나 책임연구위원 (mnkang@krihs.re.kr, 031-380-0349)

국토연구원 송하승 연구원 (hssong@krihs.re.kr, 031-380-0323)

• 바인더 배포 안내

「국토정책Brief」 1년치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12. 24(금)까지 아래 내용을 작성해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해주시요.

※ Fax _ 031-380-0474, Email _ supark@krihs.re.kr

수신자	
소 속	
주 소	(-)